



국가별 동향



중 국

“닭 사세요” 닭을 파는 개 ‘포착’



해외 인터넷과 동영상 사이트에서 “닭 파는 개”가 화제 거리로 떠올랐다. 중국에서 촬영되었다는 동영상에는 개가 한 마리

등장한다. 배경은 떠들썩한 시장인데 개 몸 위에는 닭들이 앉아 있다(또는 묶여 있다). 개는 ‘가격표’를 물었다. 닭이 아니라 채소 가격표일 수도 있으나, 개가 닭의 가격을 알려주며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해외 네티즌들의 지배적인 추정이다. 개 위에 앉은 닭에게도 시선이 집중된다. 닭은 꽃단장을 했다. 인내심이 대단하다. 몸을 움직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다. 개나 닭이나 모두 고요하다. 성격이 대단히 온순하고 차분한 닭과 개는 해외 네티즌을 놀라게 만든다. [팍뉴스]



미 국

닭 튀김집 찾아온 수탉, 입양



치킨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식당을 배회(?)하던 ‘수탉’이 화제다. ‘치킨집 미스터리

수탉’으로 불리는 이 동물은 최근 미국 위스콘신주 오카너모악에 위치한 치킨 전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부근에서 발견되었다. 이 닭은 주차장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살고 있었다.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단체의 전문가는 진정제 등을 사용해 가까스로 수탉을 포획할 수 있었는데, 현재 수탉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. 이 닭은 약 2주 동안 치킨점 부근에서 어슬렁거린 것으로 확인되었다. 닭의 주인이 누구인지, 또 이 수탉이 어떤 이유로 치킨집 부근에 오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이 보호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. 동물보호단체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수탉은 현재 입양을 기다리고

국가별 동향

있다. ‘치킨집 인근에서 잡힌 닭’ 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“가족을 구하기 위해 수탉이 치킨집에 온 것이 아니냐?”면서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. [팝뉴스]



영국

‘파베르제 계란’, 무려 1,500억!

영국 런던의 파베르제(Faberge) 상점에서 러시아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를 위해 만들어 졌던 ‘파베르제 계란’ 목걸이가 제작되었다. ‘파베르제 계란’은 보석 세공 명장인 칼 파베르제가 러시아 황제들을 위해 만든 부활절 계란 장식품으로 총 50개 중 42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보석 채굴 회사 겐필즈(Gemfields)는 이 작품을 자사 주주인 투자 회사 팰링허스트 리소시스(Pallinghurst Resources)로부터 1억 4,200만 달러(약 1,536억 원)에 구매할 예정이다. [로이터]



아일랜드

산업불황속 양계산물 소비량 증가

아일랜드는 전체 육류 소비량 중 닭고기가 33%를 차지했으며 연간 1인당 25.7kg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 수치는 유럽에서도 소

비량이 많은 편에 속한다. 또한, 연간 1인당 계란구매에 85유로를 사용하며 165개를 소비하고 있다. 54%가 매주 한번씩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11% 증가한 수치이다. 하지만 2012년 업계 불황속에도 판매량이 증가되었지만 2013년에는 식료품비 인상 등 고물가로 양계산업도 어려움이 예상된다. 업계 관계자는 “동물복지정책, 생산원가의 급격한 상승 등 최근 많은 변화들이 있고 점점 변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. 업계종사자들은 많은 회의와 협의를 원하고 있다”고 전했다. [ThePoultrySite]



베트남

닭고기 부분육 수입 금지 요구

베트남 동남부지역 양계협회는 정부에 자국 닭고기 제품 보호를 위해 부분육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. 현재 베트남에서는 닭다리와 날개에는 20%의 관세를 다른 부위에는 40%의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. 협회 관계자는 “관세부여에도 자국내 닭고기보다 싼 편이라 경쟁력이 떨어진다”고 말했고 “닭고기 부분육 수입을 금지하고 자국 육계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했다. 무역청장은 “2012년 1월~10월까지 56,000톤의 육류 수입 중 대부분이 닭고기가 차지 한다”고 말했다. [asian-agribiz]